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934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



머리말

이 땅의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여성의 인간화와 가정의 민주화 반세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한국전쟁이 끝나고 폐허나 다름없던 이 땅에 이태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여성 선각자들이 법률구조 사업의 씨앗을 뿌린 뒤 50여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956년 여성문제연구원의 방 한 칸을 빌어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울고 웃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꾸준히 참여해온 상담소의 50년 역사를 정리하는 책을 준비하면서 저는 창설자인 이태영 선생님께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년사」에 쓰신 권두언을 찬찬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 30년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세월이었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는 세월이었으며 무형에서 유형의 역사를 창조해 내는 각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상담소가 추구하는 이념은 ‘여성의 인간화와 가정의 민주화’라는 창설의지를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담소가 본격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불합리한 인습, 불평등한 법과 제도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봉건시대의 남녀차별 유습과 남성 우월을 고수하려는 체제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들은 법률구조를 받기는커녕 억울하고 답답한 처지를 호소할 기관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셋방살이로 살림을 시작한 상담소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차츰 늘려가면서 그릇된 법과 제도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끌어안았고, 남녀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민주화하고,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복리를 높이기 위해 쉬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피해와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권리와 제도적 대응을 알려, 불평등한 법 자체가 빚어내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법 개정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물

론 남성도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날이 갈수록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법률구조를 바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호소에 따라 상담소는 지부 설치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현재 전국에 31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여년이 넘게 상담소가 해 온 260만 여건의 법률상담은 사회와 과학문명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터넷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래 한 해 600여 건에 이르는 소송구조는 상담소가 법률구조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담소 반세기 역사에서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성과는 2005년의 호주제 폐지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소가 정성과 열의를 다해 밀고 나온 가족법개정운동에 굵은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은 차별과 불평등을 제도화한 법을 양성평등·부부평등의 원칙 위에 바로 세우는 것으로서, 상담소는 바깥의 여러 단체, 정치권의 동조자들과 함께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뒤에도 상담소는 우리나라 민법이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의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올바른 법을 갖고, 국민들이 그 법을 제대로 알아야 개인의 의식과 집단적 이성이 발달할 수 있다고 믿는 상담소는 사회교육사업의 선두에 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습니다. ‘법의 생활화’를 위한 각종 법률강좌를 비롯해서 가족구성원들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과 역할을 확립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사회 그 어느 부문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가족문제의 다양한 성격과 현상을 파악해서 바른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가정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고, 내담자들의 입을 통해 그 실상을 가장 넓고 깊게 이해하고 있는 상담소가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인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상담소는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발하게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한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법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국민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소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인 〈가정상담〉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통해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사회의 모든 번민하는 이웃들이 상담소를 찾아 와서 해결책을 얻어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을 실현함은 물론, 나라의 민주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 간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며 그 소용돌이 속에 가정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런 가정, 그리고 가족구성원들과 반세기 역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그것은 땀과 눈물, 헌신과 감동으로 이어진 시간들입니다.

단칸방에 세 들어 있던 여성법률상담소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성장하면서 서울 여의도 한강변의 자체 건물인 여성백인회관에 정착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3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건물이 낡고 군데군데 상처가 나자, 상담소 안팎의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오래도록 법률구조사업의 보금자리가 될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1976년의 여성백인회관이 수많은 여성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었다면, 2007년에 완공된 새로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은 임직원들과 각계 인사들의 협업으로 일군 기적의 열매입니다. 이 회관은 상담소가 민간 법률구조기관으로써 여성,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가정문제 해결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뜻합니다. 아담하고 튼실한 이 건물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기관의 터전으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말이 사치스럽게만 보이던 암울한 시절에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 첫 발을 내딛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과 가족구성원에 관련된 불합리한 법과 봉건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높은 장벽에 부딪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과업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전문단체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사명의식으로 상담소는 50여 년 동안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면서 그 장벽을 넘어왔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가 '황무지에서 성장의 텃밭'을 일군 시기라면, 70년대는 공익법인으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때였습니다. 80~90년대에는 법률구조사업과 가정문제 예방교육을 전국에 확산시키면서 법률구조법 제정에 앞장서서, 마침내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국가가 공인한 법률구조법인이 되었습니다.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받게 된 상담소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법률구조의 질적 성장을 통한 전국 확대를 위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조직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상담소 창설 50주년을 맞아서는 법률구조뿐 아니라 가족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제시와 교육·문화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시행하면서, 언론매체들을 통해 상담소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급히 들어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세대 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한 대량 실업,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한 취업 같은 문제 때문에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의 대다수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국제결혼의 결과로 생긴 다문화가정, 이혼율 증가나 부모 중 한 사람의 사망이 빚어낸 한부모가정이 상담소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의 해방 이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의 날에 겪을 법적, 경제적 분쟁도 상담소가 미리 해결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여 년의 역사에 굵은 글씨로 기록해야 할 또 하나의 성과는 우리사회에 자원봉사 체제를 선도적으로 확립했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법률상담과 전화안내를 도와 주신 자원봉사자, 상담과 소송을 해 주신 백인변호사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50년사>에 일일이 기록하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신합니다. 여성백인회관은 물론이고 지금의 새 회관을 건축하던 때에도 의자 하나, 벽돌 한 장부터 소중한 유산까지를 기꺼이 기부하신 이름 없는 시민들, 그리고 땀 흘려 모은 돈 가운데 큰 액수를 보내어 회관이 확실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야말로 자원봉사의 꽃이라 불러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상담소가 이렇게 튼튼하게 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신 분들께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상담소의 문을 여신 이태영 선생님, 초창기부터 든든한 후원을 하신 황신덕 이사장님, 상담소의 사업과 조직을 체계화하신 제3대 김흥한 이사장님과 제4대 윤후정 이사장님 그리고 상담소의 중추적 일꾼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이사를 맡고 계신 차명희 선생님과 이사님들의 노고를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소 운영 책임자로서, 풍족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60주년, 70주년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상담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책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1956~2008)」에는 앞에 언급한 상담소의 역사, 사업의 의미, 참여한 사람들, 앞으로의 전망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 일어난 일과 해온 일을 한 권의 책에 모두 싣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저희가 오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욱 도약하는 디딤돌로 삼는 방향으로 이 책으로 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창립 30주년을 맞아 펴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년사」를 바탕으로 그 후 20년의 역사를 조망하는 <50년사>를 준비했습니다. 상담소가 앞서 30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더욱 보람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로서 이 책을 편찬하려고 애썼지만 모자란 점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제1부는 상담소가 걸어온 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통사, 제2부는 상담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현황, 제3부는 법률구조, 가족법, 가족의 미래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쓴 글들입니다. 그리고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 이야기와 관련 자료들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기록을 작성하려고 노력했지만, 50년이라는 긴 세월의 수많은 사실 중에서 놓친 부분이나 미흡하게 옮긴 대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기획 단계부터 발간위원으로 참여하여 편찬 방향을 제시하시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집필자들에게 귀한 조언을 해주신 장명수, 이종대, 윤호미, 박금옥 선생님과 본소 차명희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획과 편집·인쇄를 맡아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랜스에디팅의 채희문 대표님, 자료 수집과 책 제작 전반을 주관하신 본소 이숙현 출판부장님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번민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법률구조기관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담소의 반세기 역사를 담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이 책을 전거로 삼아,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을 맞이할 때 상담소 후배들과 저희 후손들이 찬란한 <100년사>와 <200년사>를 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년 8월 _ 한강이 보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에서

1

결혼은 성인남녀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며, 두 사람의 행복과 인격적 성숙을 위해 협동하는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 결혼은 혈통만의 이음이나 가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결혼 당사자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가정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민주적 생활공동체이다.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는 권위주의적인 상하 관계나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가족은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 안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배우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

3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는 사회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공적이고 역사적인 숭고한 기능이므로 부부는 출산과 양육의 임무를 더욱 신중하고 충실하게 준수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임신·출산·양육에 따르는 책임을 가족과 나누어져야 한다.

가사노동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댓가는 한 가정의 재산형성이나 분배 등에서 재물을 인정받아야 한다.

4

이제 세계는 하나의 가정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현 시대가 안고 있는 온갖 긴장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계 가족들은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1986년 10월

겨자꽃 핀 봄날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새로운 반세기를 위하여

법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지만
법처럼 굳은 땅에 어떻게 싹이 틈겨
바위 밑에서 민들레가 돌아나듯
아마도 꽃 피우는 법이
따로 있기는 있을지 몰라

반세기 전 척박한 땅 어두운 곳에
한 알의 겨자씨가 떨어져
어여쁜 우리나라 여자들의
그중 슬픈 눈물 곁에 꽃 한송이 피우더니
이 봄에는 여의도 한복판에
눈부시게 샅노란 겨자꽃 잔치!

네전에 사내들이 못된 관습에 매여
누를 게 아각 밖엔 따로 없다는 듯
화풀이로 손저검도 하였었지만
가여운 우리나라 여자들의
그중 슬픈 알치마를 적시기도 하였었지만
이제는 새 누리에 환한 꽃밭 보겠네

아희들아 나와서 바라보아라
가난한 네 엄마가 물레 울면서
온 누리에 이롭게 꽃이 피었다
아아, 슬기로운 우리나라 여자들이
반세기나 남아 되는 오랜 세월 끝에
바침내 꽃이 되는 것을 눈 비비며 보겠네

무자년 삼월 정희성

CONTENTS

1956~
2008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

머리말 | 광배희 · 축시 | 정희성

통사(通史) 새로운 길을 만들며 오다

제1부 | 법률구조사업의 태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56~1986

제1장 | 법률구조의 씨앗을 뿌리다

1 가정법률상담소 창립

여성법률상담소 탄생과 창설자 이태영 소장	52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다	57

2 여성인권의 버팀목이 되어

언론에 비친 초기의 상담소	58
민법제정에 따른 여성의 법적지위 투쟁	61
가정법원 설치	61
법률 임상실습 시작	63
실무진 확충과 운영의 체계화	64
10주년 기념식	65

제2장 | 산업화 사회의 가정과 가정법률상담소

1 여성백인회관 신축

백인회관 결성	69
건축기성회 발기총회와 3·1 구국선언	70
여성백인회관의 문을 열다	73

2 사회교육사업

법률강좌	76
어머니를 위한 자녀교육 강좌	7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

무료결혼식	79
어머니 학교	85
할머니할아버지 학교	90
기러기교실	91
교양 · 취미교실	92

3 조사 · 연구 사업과 인권운동

조사 · 연구사업의 첫 결실	93
아동과 노인의 인권	95
해외동포와 이민가정	97

제3장 | 법률구조사업의 진화와 확산

1 가족법개정운동의 선두에서

가정법률상담소와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100
가족법 개정안 통과	102

2 국내외 지부의 설치 · 확대

해외지부 확대	104
국내지부 출범	107

3 창립 30주년 - 법률구조 사업 확산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109
법률구조사업 30년의 의미	113

제2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약과 법률구조사업의 성장 1987~2008

제1장 | 뿌리내리는 법률구조사업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4

1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16
야간상담과 이동순회상담	117
주택임대차 상담을 위한 시청 분소	118
업무 전산화	119
법률상담 전문요원 교육	120
2 다시 불붙은 가족법개정운동	
동성동본금혼법개정 운동	121
가족법개정을 위한 홍보	121
3 교육사업 확대	124
4 중립 어린이집 개원	125
5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부	127
6 조사·연구와 출판·홍보 사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년사」,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발간	128
상담통계집과 〈어떻게 할까요?〉	131
〈가정상담〉 지령 100호	132

제2장 | 변화하는 사회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9

1 창립 40주년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흥한 제2대 소장 취임	134
조직 체계화와 창립 40주년	136
컴퓨터 통신·인터넷 상담	138
2 동성동본 금혼 철폐와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동성동본 금혼 규정 사문화	139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140

3 성장을 위한 진통	144
--------------------	-----

4 창설자 이태영 소장 영면	147
------------------------	-----

제3장 |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

1 광배회 제3대 소장 취임	150
법률구조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	155
창립 45주년 - 지부의 날·열린 음악회	162
공익법무관 파견과 소속 변호사 채용	164
업무표장등록	164
더욱 전문화되는 가정폭력 상담	165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 프로그램	169
조사·연구사업과 홍보활동	171
전문 인력의 충원과 사업 확장을 위한 재정의 확대	175
영광의 순간들	176

2 가족법개정운동의 한 획을 긋다	
본격화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	178
마침내 이룬 호주제 폐지	180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82

3 창립 50주년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새 회관	
왜 새로운 회관을 지었는가	184
무수한 고비를 넘긴 건축과정	185
회관 건축의 공익성을 확인한 복원기금의 수혜	187
‘한 톨의 씨앗이 드넓은 꽃밭으로’ - 회관 신축 기념식	189

4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198
----------------------	-----

이태영 선생님 이야기 - 번민하는 이웃에 바친 한평생	200
-------------------------------	-----

제1장 | 법률구조사업

1 법률구조사업의 형성과 시대적 배경	226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적 위상의 변화 -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에서 업무표장 등록까지	229
3 법률구조 현장	
법률상담	231
심리상담	231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232
소송구조	232
출장상담의 실시에서 인터넷 상담까지	233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	234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가정폭력상담	234
법률임상실습과 법률상담 전문요원 교육	236
백인번호사단과 함께	237
실무진 재교육과 국제적 교류	239
4 법률상담의 시대적 변화	
연대별 분석	246
내용별 분석	251
5 자원봉사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후원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손길	
아시아재단의 지원	262
해외 지부의 설립으로 이어진 해외 후원회 결성	263
10인클럽의 탄생	264
17인클럽의 활동	265
아름다운 인연, 아씨회	266
포드재단과 25클럽의 지원	266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267

제2장 | 가족법개정운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제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276
2 제2차 가족법 개정 (1963~1977)	280
3 제3차·4차 가족법 개정 (1978~2002)	282
4 제5차 가족법개정과 호주제 폐지 (1999~2005)	288
5 제6차 가족법개정 (2000~2007)	290
6 가족법 개정의 의미	292

제3장 | 지부 설치 사업 -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확대

1 지방상담소 개설 지원	297
2 해외지부의 설치	301
3 국내 지부의 전국적 확대	304

제4장 | 교육사업을 통한 의식개혁 및 가정문제 예방

1 초창기 교육사업	
생활법률·재산법·세법·어머님을 위한 자녀교육 강좌	309
어머니학교	310
할머니할아버지학교	311
기리기교실	312
교양·취미교실	312

2 무료결혼식	313
---------	-----

3 전문화하는 교육사업

공개강좌 : 생활법률강좌 · 부부갈등의 해결을 위한 워크숍	314
결혼과 이혼을 준비하며 : 결혼아카데미 · 이혼 전 후 · 한부모가정 · 재혼가정 프로그램	316
남성 · 노인 · 독신가족 프로그램	319
전문강좌 :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 양성과 심화교육	322

제5장 | 출판 · 홍보를 통한 상담소 사업의 저변 확대

1 출판사업

초창기 출판활동	324
출판사업의 본격적 전개	327
현재 발행 중인 상담소의 대표 간행물	330
가정상담	334
영상홍보물	339

2 조사 · 연구

초창기의 자료수집과 보전	341
활발한 조사, 연구 활동	342

3 도서관

아시아재단의 지원과 자료의 체계화	347
통계자료 전산화 작업	349
법률 · 가족 · 여성 관련 전문 도서관	349

4 활발한 홍보 활동

351

5 많은 상을 받다

이태영 소장	35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56

전망(展望) 법률구조 · 가족법 그리고 한국사회와 가정의 미래

한국의 민사 법률구조의 발전 방향 _ 황승흠	362
--------------------------	-----

가족법의 변화 - 평가와 전망 _ 김상용	368
------------------------	-----

가족의 미래 : 유동성(liquidity) 확산과 신(新)공동체를 향한 여정 _ 함인희	375
--	-----

자료편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혁	387
2 52년간 상담사건 통계 및 가정폭력상담 통계	394
3 제52차년도 상담통계	518
4 교육부 프로그램 통계	536
5 주요 강연회 및 심포지엄 · 토론회 · 간담회	538
6 주요 출판물 및 영상물	548
7 지부현황	552
8 백인변호사단	554
9 교육위원회	555
10 자원봉사자	556
11 평생회원	558
12 여성백인회관 건축 백인회원	560
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회관 건축후원회원	561
14 역대 이사 및 운영위원	563
15 역대 직원	564
16 현 임직원	565